

‘백척간두’ 대불산단 조선업계

‘고용위기지역’ 4차 연장기간 연말 종료...정부 지원 등 혜택 끝나 내년 납부 4대 보험료만 수억 원 “위기지역 재연장 등 대책” 호소

영암과 목포의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연말이면 해제됨에 따라 대불국가산단을 비롯한 지역 조선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약 5년간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혜택을 받아왔지만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뿐더러, 그동안 4대 보험료 납부유예 혜택을 받은 협력업체들은 내년 초 수억원 이상의 누적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지역 조선업계가 여전히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위기지역 추가 연장을 위해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 등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시와 영암군은 조선업 비중이 높은 대불국가산단이 소재해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4일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차 연장(2019년 5월4일~2020년 5월31일)과 2차 연장(2020년5월4일~12월31일), 3차 연장(2021년 1월1일~12월31일), 4차 연장(2022년 1월1일~12월31일) 등 약 5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협력업체들은 ▲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4대 보험료 유예 등을 지원

받았다. 근로자들도 ▲직업훈련생계비 용자 확대 ▲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용자 기준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4차 연장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 관련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추가 연장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4차까지 추가 지정 연장이 가능했던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고시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격상돼 추가 지정이 어렵게 됐다. 올해 2월17일 신설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30조의 2’를 보면 ‘지정기간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법이 바뀌면서 목포시와

영암군은 이미 3회의 지정 연장을 받은 탓에 추가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

무엇보다 5년간 4대 보험료 유예 혜택을 받아온 조선업 하청업체들은 당장 내년 초 그동안 밀린 거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올해 6월 기준 사내협력사 157개사 중 39개사가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면서 쌓인 보험료가 총 246억원에 이르고 설명했다.

전남도에서도 영암과 목포지역 조선업계가 유예한 보험료를 파악하는 중이다. 현재 목포의 조선사는 14개사, 기자재기업은 32개사 등 46개사다. 영암은 조선사 28개사, 기자재기업 109개사 등 137개사다. 목포와 영암의 조선업체는 총 183개사로, 이들 업체가 최소 수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유예해 내년 초 상환해야 할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조선업계 협력업체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험료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거래 제한 등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선박 수주 호황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협력업체들은 극심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조선업 수주가 증가해 호황기로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물량이 현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사실이다”며 “후속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ESG 경영·친환경 기술혁신 집중으로 시련에 굴하지 않는 ‘백년 효성’ 만들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창립 56주년 기념사



조현준(사진) 효성그룹 회장은 2일 임직원들에게 “최근 전 세계에 새로운 경영 트렌드가 되고 있는 ESG 경영과 친환경기술혁신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지구온난화와 탄소중립이 이슈가 되면서 친환경적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창립 56주년(11월3일)을 하루 앞둔 이날 창립기념사를 통해 “최근 많은 글로벌 고객사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절감했다”며 “친환경 기술과 제품, 생산공정 등을 통해 인류의 미래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은 앞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VOC(Voice of Customer,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 이 같은 고객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달라지는 니즈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하는 현지 고객의 VOC를 적극 경청하고, 이를 우리의 모든 사업분야에 접목해야 한다는 게 조 회장의 설명

이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고객에게 답이 있다. VOC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그 결과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데 반해, 해외 사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효성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플레이어인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수집된 VOC가 모든 조직에 공유되고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효성인들이 VOC에 대한 같은 생각과 방향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금 우리는 극심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우리에게 56년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위기극복의 DNA가 있다”며 “이 위기는 언젠가 지나갈 것이고 그 뒤에는 기회가 올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기업’, ‘백년기업 효성’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도 전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업장에서도 사고의 위험을 가진 모든 요소를 철저히 점검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선대회장인 고(故) 조흥제 회장이 효성그룹의 모태인 동아나이론을 설립한 1966년 11월 3일을 창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효성은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창립기념일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으며, 사내 게시판을 통해 창립기념사를 게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행운적금’ 가입하고 ‘명품 백’ 행운까지

광주은행 연 최고 13.7% 적금 이벤트...내달 16일까지

광주은행이 추천 방식으로 연 최고 13.7% 이자를 주는 ‘행운적금’ 가입 고객 777명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는 행사를 연다.

행사 이름은 ‘행운의 샵 다(多) 드림 7’이다. 오는 12월16일까지 행운적금에 월 10만원 이상 정액적립식으로 가입한 뒤 스마트뱅크 앱을 통해 별도 응모하면 된다.

1등 당첨자에게는 명품 가방을 주고, 2~6등에게는 명품 지갑과 목도리, 향수, 화장품을 준다. 행운상 751명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준다.

광주은행은 창사 54주년을 앞두고 지난 9월 비대면 전용 가입 상품 ‘행운적금’을 출시했다.

매주 월요일 6개 임의 숫자 조합으로 이뤄진 행운번호를 배정하고, 배정된 행운번호를 대상으로 금요일에 당첨해 당첨된 계좌에 연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행운번호 추첨에 당첨됐을 경우 1년제 정액적립식에 가입했을 때 연 13.70%(자유적립식 연 13.40%)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제18회 광주전남벤처포럼’ 열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지난 1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호텔코아에서 ‘제18회 광주전남벤처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우드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박동혁 ㈜에이블클라우드 대표가 주제 발표에 나서 인공지능시대 클라우드 활용방안과 빅데이터, 딥러닝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밖에 우수기술도 소개했다. 이민 에스엠소프트웨어 이사는 음성인식기술 기반 스마트AI 노인돌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사업을 소개했다.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는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의 시대를 이끌 중요한 화두가 됐다”면서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한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상의, 유망기업 제품 BtoB 홍보간담회

고스트페이스 등 7개 기업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 유망기업 제품 BtoB 홍보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원하는 광주일자리창출 혁신프로젝트 ‘유망기업 미래 핵심기술 융복합 패키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달 26일과 이날 각각 42명, 48명이 참여했다.

광주상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중고와 중국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인 약세 심화로, 지역기업의 매출 급감, 고용률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홍보기업은 ㈜고스트페이스, ㈜디지털안전기술단, ㈜호그린에어, ㈜한국씨앤에스, 알파시스템창조㈜, ㈜넷은, ㈜리딤 등 7개 기업이다.

㈜고스트페이스는 생체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자의 스마트기기에 개별저장 하는 방식을 사용해 감시, 통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생체정보 대량유출 불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보안 및 인증 솔루션 개발하고 있는 AI 전문기업이다.

㈜디지털안전기술단은 산업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를 감지하고 신호를 발생시키는 차량용 2채널객체 인식 AI 단말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호그린에어는 기체, 액체 수소 드론을 개발하여 최대 12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이동통신망을 통한 거리 제약없이 비행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한국씨앤에스는 국내 유일 독점기술인 패터닝 고무 제조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면적



‘광주 유망기업 제품 BtoB 홍보간담회’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가 자사의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상의 제공)

디자인 콘크리트 패널 제조기업이다.

알파시스템창조는 평동공단에 단열창호 제조라인을 구축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해 방화창호, LX시스템창호 등 창호 제조 및 창호공사를 하는 기업이다.

㈜넷은은 지난 AI 테스트베드 코리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생체정보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카메라로 획득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분석해 정보 및 알람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가진 AI전문 기업이다.

리딤은 지난 AI테스트베드 코리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으로 시끄러운 소음환경에서 근로자의 귀를 보호하고 통화시 목소리를 깨끗하게 전달해 정상통화가 가능한 산업용 블루투스 이어셋을 생산하고, 근로자가 작업 전 생체신호를

자가 측정해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AI기반 의료 디바이스 개발기업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36.87(+1.65)
▼ 코스닥	697.37(-2.68)
▲ 금리(국고채 3년)	4.095(+0.027)
▲ 환율(USD)	1417.40(+0.20)

한전KDN ‘빅스포 2022’ 신기술 선보인다

한전KDN은 2일부터 오는 4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전력 박람회 ‘빅스포 2022’에 참가해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국내 유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업으로, 4가지 기술을 출품·전시한다. 박람회에서 한전KDN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ICT 플랫폼 ‘이음’과 분산형 전원 출력제어 단말장치를 선보인

다. 고유 번호(IP)를 기반으로 한 배전 설비 보안시스템과 수도도시 통합관리 클라우드 플랫폼도 전시에 포함된다.

한전KDN 관계자는 “KDN의 최신 ICT기술을 빅스포 2022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다”며 “한전KDN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의 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감 농가 일손 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곡성군지부, 옥과농협 임직원 40여 명은 2일 곡성군 오산면 대봉감 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을 돕고 있다. 한편 전남농협은 이달 한 달 동안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전남농협 제공)